2007. 3. 23 사례발표
전국지역혁신협의회 의장단 연찬회

진안군 '으뜸마을가꾸기' 사례

전국 최초!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개발

진안군청 정책기획단 마을만들기팀
곽 동 원 <kdw77225@hanmail.net>

시작하는 말

< 마을만들기의 중요성 >

- 시대적 흐름 (시대의 요구)
- 기존 농업 위주의 지역개발 방식으로는 더 이상 농촌에 희망이 없음
- 마을공동체 복원의 필요성(지속가능한 농촌)
- 마을 경쟁력 → 읍면동 경쟁력 → 시군 경쟁력 → 도의 경쟁력 → 국가 경쟁력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이란?

의 미

- 진안군만이 추진중인 내발적 마을만들기 사업
- 주민주도형, 상향식 마을개발사업

주요특징

- 기존의 외부자본 의존형, 하향식 국가보조에 의한 농촌개발 방식에 대한 반성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협력을 전제
- 마을별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육성
- 주민 모두가 다같이 잘 사는 농촌공동체 복원운동

사업 추진배경

▮ 기존 농촌/농업 개발방식에 대한 반성

- 농업구조개선사업(42조), 농특세사업(15조)은 어디로?
- 농'업'이란 산업적 접근의 한계, '규모화'란 신화(神話)
- 농가 단위 지원의 부실구조, 통제력을 상실한 마을공동체 사회
- 주민 요구와 단절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하향식 방식의 한계

▮ 변화하는 국제 농업환경에 대한 대응력 강화

- WTO, FTA 등 시장개방 : 농가 개인의 대응으로는 극복 불가능
- 국가 대응의 한계 ➡ 마을의 공동대응력 강화
- '양'보다 '질', '물질'보다 '문화'가 경쟁력을 가지는 시대

➡ 새로운 전망, 시대적 흐름에 기초한 농촌 마을공동체 복원

사업의 목표

- 생산, 가공, 유통, 도농교류가 일체화된
  고부가가치 농업 통합시스템(total system)의 실현
- 환경친화적 특화작물의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업모델의 구축
- 도.농교류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相生)하는 마을 건설
- 농업과 농촌관광, 향토문화가 어우러진 마을 건설
- 주민과 지역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마을 건설

대상지구 선정과 특화사업

대상지구 – 읍면 추천

- 11개 읍면당 발전가능성이 높은 1개 지구(마을)
- 읍면에서 선정하여 군에 신청. 모델마을, 선도마을 방식

선정기준 – 군 조례

- 젊고 의욕적인 지도자가 있고, 단합이 잘 되는 마을
-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작목반 조직이 있는 마을
- 특수작물이나 기타 특별한 소득작목이 있는 마을
- 도농교류 행사경험과 독자적 유통망을 갖고 있는 마을
- 정책수행 및 행정협조에 적극적인 마을

대상사업

- 지역특색에 맞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적 작목중심 특화
- 소득사업 및 소득 기초가 되는 관련 사업

대상지구 및 특화사업

주천면 무릉지구
생약초, 표고
용담면 와룡마을
산초, 붕어, 민박
상전면 용평지구
버섯(영지,상황), 민박
정천면 봉학지구
씨없는 곶감
안천면 노채마을
산머루, 포도, 흑미
부귀면 방곡지구
씨없는 곶감, 장류
동향면 능금·학선지구
환경농업, ■, 인진쑥
마령면 신동마을
고사리, 두부, 장류
진안읍 사양지구
한봉, 민박
성수면 중길지구
환경농업, 쌈채, 버섯
백운면 동창지구
환경농업, 오가피
주천면
용담면
정천면
안천면
부귀면
상전면
동향면
진안읍
마령면
성수면
백운면

주요 추진경과

- 전임계약직(경제학박사) 채용 : 2000년 12월
- '읍면지역개발계획' 이름으로 첫 시행 : 2001.1월
-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명칭 변경 : 2003.1월
- 조례 제정, 군/읍면/마을 추진위원회 구성 : 2003. 7월
- '으뜸마을가꾸기' 5개년 계획 표본안 작성 : 2003. 9월
- 특별교부세 국비(10억) 확보 : 2003.10월(2005년 집행)
- 홈페이지(http://jinan.jeonbuk.kr/top/) 제작 : 2003.12월
  (이후 전임계약직 공석으로 1년간 사업 지체)
- 사업 담당 전임계약직(농학박사) 채용 : 2004. 12월
- 도비(5억원) 확보 : 2004.12월(2006년 사업진행중)
- 지구 추진위원장 협의회 구성: 2005년 1월
- 진안군 마을간사 지구별 배치 : 2006. 3월(11명)

사업성과 1

투자예산의 효율성과 경제적 파급효과(선택과 집중)

- 주민주도형(계획 결정, 추진) 사업으로 낭비요인 최소화
- 대상지구는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각종 국비 지원사업 유치
  *11지구 중에서 7개 마을 지원(총계 약110억원 규모)

주민주도형 개발방식의 정착

- 농촌형 민관협력체계(로칼 가버넌스) 모델 구축
  * 잘못된 행정 관행의 수정 계기 제공
- 농가 개별보조가 아닌 마을공동사업 지원 모델 구축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효과

- '우리도 합심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단초 제공
- 마을공동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 의식 전환
- 마을간 선의의 경쟁의식 확산

사업성과 2

지역경제에 대한 직/간접적 파급효과

- 마을별 자원 활용한 지역특산물의 발굴 및 육성에 기여
- 진안군 특산물의 다양화와 고급화에 기여
-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촌관광객 급증
  (예, 2004년 연간, 능길: 1만명, 무릉: 5700명)
- 농특산물 직거래 급증, 타 마을로 모델 확산
- [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연수원 유치 기여

주민 자부심 증대 및 의식 전환

- 으뜸마을로서의 주민 자부심 증대, 일체감 강화
- 주민주체적인 자발적인 노력의지 확대, 강화
- 행정과의 협조의식 강화, 마을리더의 행정절차 이해도 상승

사업성과 3

언론보도 등(2002년 – 2006년)

- 주민교육 및 좌담회 : 168회 (마을별 평균 15회 이상)
- 주요 신문, 방송 등 언론 보도 : 총45회 이상
- 해외선진지 견학 : 3회, 47명, 국내선진지 견학 : 9회, 555명
- 중앙부처 및 언론 관심 집중과 특별교부세 배정(총15억원)
- 대상지구별로 중앙부처 사업 예산 확보 급증

년도별	언론 보도	선진지 견학		주민교육 및 간담회
		국내	해외	
계	78회	11회(605명)	2회(38명)	201회
2003	12회	5회(425명)	1회(23명)	37회
2004	5회	1회(40명)	0	48회
2005	26회	3회(90명)	0	61회
2006	35회	2회(50명)	1(15명)	55회

사업의 반성

지역 공무원의 관심 부족

- 마을만들기에 대한 철학 부재로 상호 협력이 어려움
- 단체장이 바뀌면 바뀔 것이라는 일회성 사업으로의 인식

마을대표 중심의 추진 한계

- 주민 갈등의 원인으로 급부상 마을공동체 형성 저해
- 마을 대표가 없으면 마을이 없음

주민의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

-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하려는 근시안적 자세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부족 (경제적 접근)

향후계획 및 건의사항

■ 공무원의 자발성을 이끌 내는 철학을 확립

- 공무원 교육의 체계화 및 지속성 담보 : 학습 풍토 여건 조성
- 공무원 교육의 방식의 전환 : 자발적 학습소모임 '그루터기'활성화

➡ 학습 소모임 전국대회 추진(상호 교류를 통한 발전)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시스템 만들기

- 마을 공동 활동체계 구축 : 규약만들기, 조직체계 정비, 마을소식지
- 마을 내 사무, 기획, 유통 역량 강화 : 귀농인 마을간사 제도 운영

➡ 귀농인 마을간사 제도 정착화

■ 제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07.4.12~4.14) 관심과 참여

- 마을만들기 활동가, 지역리더, 마을대표, 공무원 등 400명내외

전국 지자체 최초의 상향식 마을개발사업 !
감사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